



10분짜리 단편 애니로 애니왕국 일본 ‘혼쫘’

한국의 10분짜리 단편 애니메이션이 ‘애니메이션 왕국 일본’을 뒤흔들었다. 지난달 말 일본 도쿄에서 열린 제3회 도쿄국제애니메이션페어(TAF)에서 한국의 동우애니메이션이 출품한 ‘아프리카 아프리카’(afrika a.F.r.i.c.A, 감독 한태호)가 대상인 그랑프리 를 차지해 세계를 당황하게 했다. 91년 설립해 미국과 유럽의 유명한 작품을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 방식으로 제작해온 동우애니메이션은 몇 년 전부터 본격적으로 창작활동에 뛰어들면서 제2의 전성기를 누리고 있다. 동우애니메이션은 올 상반기 경에 ‘마테오’를 극장판으로 상영하고 빠른 시일 안에 ‘아프리카 아프리카’를 장편으로 제작해 세계시장 장악에 나서겠다는 야심찬 포부를 안고 있다.

글 권경희 기자 / 사진 이혜성 기자

동우애니메이션의 ‘아프리카 아프리카’가 2004년 도쿄국제애니메이션페어에서 그랑프리를 수상해 최고의 영예를 안았다. 그랑프리는 출품작 중 최고작품에게 선정하는 것으로 올해 TAF는 16개국의 182개 출품작에서 ‘아프리카 아프리카’가 선정됐다.

2002년 처음 개최해 올해로 3회를 맞이한 TAF는 작품성과 부문별로 최우수작품을 뽑았던 지난해와는 달리 각 부문별(일반/학생/특별)로 3편씩 모두 9편을 선정, 우수상을 수여하고 이중 그랑프리를 선정해 최고 작품에 더 비중을 두는 형식을 취했다.

2002년 1회 TAF에는 베를린국제영화제와 2003년 아카데미상을 휩쓴 미야자키 하야오 감독의 ‘센과 치히로의 행방불명’이 그랑프리를 차지한 바 있다. ‘센과 치히로의 행방불명’이 제작비 250억원을 들인 대작인 것에 견주어 볼 때 10분 분량의 짧은 한국 창작 애니메이션이 그랑프리를 수상한 것은 일본 애니메이션계를 발각 뒤집을 일임에 틀림없다. 특히 이번 페어에선 출품작의 국적을 가리고 심사, 만장일치로 ‘아프리카 아프리카’가 그랑프리로 선정됐다. 심사위원들조차도 한국 작품인 것을 나중에 알고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고 시상상을 맡은 일본의 이시하라 도쿄도지사도 안색이 좋지 않았다는 후문이다.

아무튼 이번 그랑프리 수상으로 동우애니메이션의 ‘아프리카 아프리카’ 작품성 입증과 더불어 한국 애니메이션의 높은 수준을 다시 한번 전 세계인들에게 입증하는 계기가 됐다.

맨일블랙 시청률 1위로 OEM주문 쇄도 ‘출발’

91년 설립된 동우애니메이션은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 방식으로 미국과 유럽의 유명한 작품을 제작해왔다. IMF 이후 국내 대부분 애니메이션 업체들이 OEM 주문량이 대폭 줄어 어려움을 겪은 것에 반해 동우애니메이션은 꾸준히 세계 주요 작품들의 OEM을 늘려가고 창작품 제작에도 뛰어들어 차츰 영역을 넓혀가고 있다. 설립 이후 쌓아온 제작실력을 바탕으로 99년부터 본격적으로 창작품 제작에 뛰어들던 동우애니메이션은 ‘바스토프 레

몬’, ‘유니미니펫’, ‘그리스 로마신화-올림푸스 가디언’ 등 9편을 제작해 국내 각종 대회에서 수상하기도 했다. 해외 수출에도 좋은 성과를 보이며 창작애니메이션업계에서 입지를 다져나가고 있다. 어려서부터 만화를 좋아했던 김영두 대표는 지난 79년, 19살 어린 나이에 애니메이션계에 발을 들여놓았다.

일본 애니메이션사의 하청을 받아 동화를 그리고 채색을 하는 회사에서 심부름부터 시작했다. 하청작품을 들고 일본 원청회사를 드나들었다. 그 때 만난 사람들이 일본 애니메이션계를 이끄는 위치에 올랐다. 한일 공동작품인 ‘나디아’의 총감독을 성공적으로 마친 이듬해 서울 관악구 봉천동에 지하실을 얻어 애니메이션 기획제작사인 동우애니메이션을 설립했다.

작품성을 무엇보다 중요시하는 실력과 감독 출신을 CEO로 둔 동우애니메이션은 해외에서 먼저 실력을 인정받아 미 콜럼비아사와 ‘맨일블랙’이라는 작품으로 첫 거래를 시작했다. 이 작품이 미국 ‘폭스키드’라는 채널에서 시청률 1위를 기록하자, 동우의 제작실력을 높이 평가한 콜럼비아사는 TV시리즈 ‘제키찬’의 제작업체로 선정했다. 이런 성과를 바탕으로 동우는 워너브라더스, 일본 후지TV 등 외국의 유명 애니메이션 회사와 ‘스테틱 쇼크’, ‘빨간망토 차차’ 등 지금까지 총 20여편의 인기작품 제작을 해오며 기반을 쌓았다. 지난해에는 일본 만다이샤 방송용 애니메이션 ‘포트리스’를 공동 제작하기도 했다.

실력과 인재들 포진해 세계 경쟁력 갖춰

지난해부터 미국과 일본 TV시장 진출에 잇따라 성공한 동우애니메이션의 김영두 대표는 세계적으로 경쟁력 있는 작품을 만들기 위해서는 현재로서는 외국업체와의 공동제작이 최우선책이라고 강조했다. 일본·미국 업체와 함께 제작하면서 다양한 제작기법을 익힌 동우는 OEM제작에만 만족하지 않고 창작 기획·제작에도 뛰어들어 지금의 기반을 마련했다. 특히 3월 정기국회에서 ‘애니메이션 총량제’를 포함한 방송법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국산 방송 애니메이션의 수요가 내년부터 2~3배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면서 동우애니메이션도 최대의 수혜자로 주목받고 있다.

김 대표는 “국내 방송 제도의 변화에 따라 한일 합작 애니메이션으로 한국시장에 진입하려는 일본업체들로부터 공동 제작 제의가 많다”며 “애니메이션의 한일 합작은 국산 애니메이션 시장을 일본으로 확장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동우애니메이션은 각계 전문가들로 구성된 임원진, 애니메이션 ‘아마게돈’을 감독한 남종식 감독과 단편만화영화 ‘야경꾼’의 한태호 감독 등 실력과 감독 30여명과 350여명의 직원 등 탄탄한 진용을 갖추고 있다. 김 대표는 “애니메이션업계는 인력이동이 많지만 동우는 장기 근속자가 대부분”이라며 “제가 ‘인복’이 많아 좋은 인재들이 주변에 포진하고 있어 외국 배급사로부터도 많은 관심을 받을 수 있게 됐다”고 겸손해 했다.

또 김 대표는 “동우는 애니메이션 사업에 필요한 인재를 적절히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52편짜리 방송용 애니메이션 시리즈를 매주 한 편씩 완성시킬 수 있는 역량이 충분하다”며 “이번 방송법 개정으로 OEM과 공동제작이 한꺼번에 몰려와도 대처할 충분한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매출 187억원 순이익 5억원을 동우는 올해 매출을 250억~270억원 가량 순이익 30억원 이상 달성을 목표로 세웠다. 최근 들어 외국과의 공동 제작에 대한 러브콜이 늘고 있는데다 고도의 기술력을 요구하는 부문에서 OEM 수주도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아프리카’로 아카데미상 도전

김 대표는 창작만이 국내 애니메이션이 살 길이라고 강조한다. 하지만 국내 창작사들의 수익성 확보와 인력의 지속적인 활용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하청제작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그래서 그는 동우애니메이션이 만드는 모든 작품에 대해서 직접 관리·감독하는 바쁜 와중에도 수시로 외국 애니메이션업체를 방문해 하청물량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매년 높은 수출 실적을 올리고 있다. 김 대표는 “협소한 국내 애니메이션 시장 등을 감안할 때 창작만으로 회사를 꾸려나가는 것은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이라며 “창작만으로도 수익을 확보할 수 있는 단계가 올 때까지는 지속적으로 하청제작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대표는 회사의 수익성 확보의 일환으로 새로운 시장에 계속 진출한다는 계획아래 이미 온라인게임 시장에 진출해 있으며 조만간 극장용 애니메이션 ‘마테오’로 본격적인 상업 애니메이션 시장에도 출시표를 던질 예정이다. 이와 함께 김 대표는 이번 TAF에서 그랑프리상을 수상한 데모판 ‘아프리카 아프리카’를 장편애니메이션으로 완성해 2006년에 아카데미상까지 도전할 계획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김 대표는 “지금까지는 성공을 위한 기반을 다진 작업일 뿐 성공이라는 단어를 붙이기에는 이르다”며 “올 상반기에 상영할 마테오가 극장에서 흥행에 성공해야 본격도에 진입하는 것이므로 올해를 우리회사의 도약기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대표는 또 “국내 애니메이션을 많이 사랑하고 봐줘야만 경쟁력이 있고 동우가 살 길”이라며 “최고의 작품을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는 동우애니메이션을 애정 어린 눈으로 많이 봐주시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